

車산업의 심장부를 놀라게 하라!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모터쇼’ 14일 개막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2019 북미 국제 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최근 글로벌 시장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CES(소비자 전자제품 회의)에 미래형 신차들을 선보이는 등 모터쇼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미국 자동차산업의 심장인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첫 모터쇼라는 점에서 위상은 무시할 수 없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30여종의 신차를 선보이며 중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을 공략한다.

국내 업체 가운데는 기아차가 새로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텔루라이드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텔루라이드는 2016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 콘셉트카의 양산형 모델로,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돼 북미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텔루라이드의 외관 디자인은 박스 형태에 직선을 강조해 강인한 인상을 주도록 고안됐다. 실내는 7~8인승으로 구성하고 파워트레인은 V6 3.8L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제네시스 G70



기아차 텔루라이드



포드 익스플로러

/각 사

글로벌 車업체 30여종 신차 선봬

기아차, 新 SUV 세계 최초 공개
현대차, 업그레이드 N 브랜드 출격

포드는 풀체인지 익스플로러 준비
벤츠·BMW·아우디 등 불참 선언

기아차 관계자는 “텔루라이드는 북미 시장 전용 모델로 현지 소비자의 취향을 적극 반영했다”며 “최근 미국 시장에서 엔트리급 SUV가 성장하고 있는데 해당 세그먼트 시장을 완벽하게 공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의 기존 모델 업그레이드 버전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사실상 새로운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버트 비어만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본부장은 지난 7일 CES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N 브랜드와 관련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고성능 차 i30N 또는 벨로스터N의 ‘레이싱’ 버전 후속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2017년 유럽 시장에 i30N을 첫 출시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국내에 벨로스터N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 업체 중 포드는 9년 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을 거친 익스플로러 6세대 모델을 내놓는다. 첫 공개는 모터쇼에 앞선 9일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식축구 경기장 ‘포드 필드’에서 이뤄진다.

신형 익스플로러는 링컨 애비에이터와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하고 4기통 2.3L 가솔린 엔진과 6기통 3.0L·3.3L 가솔린 엔

진 및 3.3L 하이브리드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머스탱 셀비 GT 500 신모델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차는 5.2L V8 슈퍼차저 엔진을 장착해 최고 700마력 이상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캐딜락은 초대형 SUV 에스컬레이드와 XT5의 간극을 메울 XT6를 선보인다. 제너럴모터스(GM)의 최신형 6기통 3.6L 가솔린 엔진과 9단 변속기를 장착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판매는 4월부터 시작한다.

일본 브랜드 가운데 도요타는 지난 2002년 단종된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스포츠카인 5세대 수프라를 공개한다. 수프라는 BMW 신형 Z4 M410i와의 공동 개발로 일찍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 직렬 6기통 3.0L 가솔린 트윈 터보와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렉서스는 RC의 고성능 버전인 RCF에 트랙 기반 성능을 결합한 RCF 트랙 에디션을 선보인다.

인피니티는 순수 전기 SUV 콘셉트카인 ‘QX 인스파레이션’을 내놓는다. 인피니티 첫 전기차가 될 양산형 모델은 2021년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CES에 참석한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3대 브랜드가 이번 모터쇼에 불참을 선언해 아쉬움을 남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6년 만에 풀체인지한 모델 더 뉴 CLA를 CES에서 처음 공개해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발표되는 ‘2019 북미 올해의 차’에 대한 관심도 높다. 한국 차종으로는 제네시스 G70이 승용 부문에서, 현대차 코나가 유ти리티 부문에서 각각 최종 후보에 올라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차, 설 연휴 220대 귀향車 무상대여

더 K9 등 7박 8일 시승 이벤트
중증장애인 가정 13곳 지원도



니발 이지무브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아차와 함께하는 행복한 초록여행’ 이벤트도 진행한다.

선정된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과 함께 유류 완충, 여행경비, 귀성 선물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25일까지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오는 20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시승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아차는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명절 기간 고향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 13곳을 선정해 카

특별함 없는 SUV... 국내서 통할지 의문

YG의 카톡

닛산 ‘더 뉴 엑스트레일’

닛산의 3세대 엑스트레일(미국명 로그) 부분변경 모델이 국내에 출시됐다. 엑스트레일은 지난 2000년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600만 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특히 엑스트레일은 북미 지역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에 더 뉴 닛산 엑스트레일의 장단점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일 편도 약 50km 구간을 시승했다. 이날 시승코스는 용인 플라이스테이션을 출발해 애버랜드 둘레길을 거쳐 경기도 이천의 반한점을 돌아 오는 왕복 약 90km 구간으로 고속, 와인딩, 도심 등의 구간을 고루 경험해 볼 수 있는 코스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뛰지 않고 무난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격전지인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차량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인 디자인은 매력적이다. 닛산 고유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V-모션 그릴이 눈에 띈다. 닛산을 상징하는 이 모양은 엑스트레일이 일본 출신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또 V자 형태의 풀 LED 헤드·테일램프가 차량의 볼륨감 있고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다.

내부는 시트와 기어노브 등에 가죽 소재를 적용하여 세련미를 더했으며, D컷 스티어링 휠을 적용해 스포티한 감성을 선사한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더 뉴 닛산 엑스트레일.

글로벌 시장선 베스트셀링 모델
매력적 디자인에 스포티한 감성

가속성·민첩함 부족, 소음 단점
가격도 북미 판매가 보다 비싸

직렬 4기통 DOHC 가솔린 엔진으로 D-스텝 투닝을 적용한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와의 조합을 통해 최고 출력 172마력, 최대 토크 24.2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주행 중 아쉬운 부분은 주행모드 변경은 운전대 좌측 아래, 열선 버튼은 중앙 팔걸이 밑에 위치해 조금 혼란스럽기다는 느낌을 받았다.

엑스트레일은 2열 뒷좌석은 여유롭게 마련했다. 슬라이딩/리클라이닝 기능을 포함해 40대 20대 40 비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뒷문은 최대 77도까지 열려 승하차시 편리하다. 트렁크 공간 역시 모든 좌석을 앉은 상태로 놓을 경우 565L, 좌석들을 모두 접을 경우 1996L 까지 늘어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활용성을 뛰어났다.

판매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 2WD 스마트 3460만원, 4WD 3750만원, 4WD 테크 4120만원으로 경쟁 수입 모델과 비슷한 가격대를 갖추고 있다. 단, 북미에서 로그의 판매 가격이 2만4800달러(약 2787만원)에 시작된다는 점이 아쉽다.

대구·무안 출발 규슈 노선 1+1 이벤트

티웨이항공, 20일까지 구매 가능
여행기간 오늘부터 3월30일까지

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일부 제외 기간이 있으며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일본 규슈 지역에 서만 총 11개 노선(인천~후쿠오카, 대구~후쿠오카, 인천~사가, 대구~사가, 부산~사가, 인천~오이타, 부산~오이타, 무안~오이타, 인천~구마모토, 대구~구마모토, 무안~기타큐슈)을 운항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LCC 중 21개 최다 일본 노선을 운영하는 티웨이항공과 함께, 더욱 편리하고 알찬 일본 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벤트 대상은 무안~오이타, 대구~사가, 대구~구마모

토 총 3개 노선이다. 여행기간은 오는 14

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일부 제외 기간이 있으며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